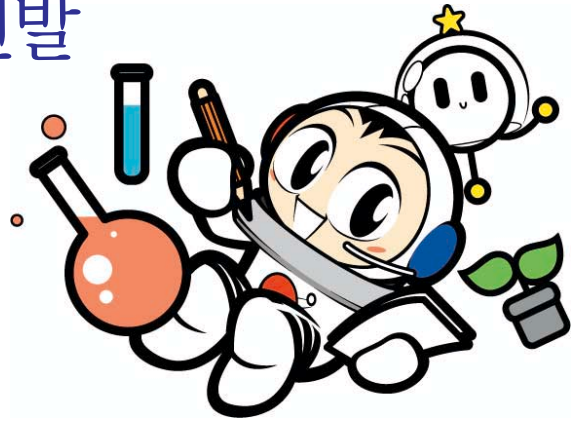


한국 첫우주인 2명 최종 선발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한 국인 최초의 우주인 선발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2006년 4월 3만6천여 명이 응모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 동안 4차 선발자까지 가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선발 과정이 크게 4단계라지만 크고 작은 탈락 절차를 모두 합하면 10차례가 넘었다.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어 다소 관심이 떨어졌던 우주인 선발 열기는 연말로 갈수록 서서히 달아오르며 12월에는 정점을 기록했다.

지난 성탄절 마침내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국 우주인 2명이 확정됐다. 고산(삼성중합기술원 연구원)씨와 이소연(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씨가 그들이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우주인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주인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1. 우주인은 우주선을 조정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해리슨 포드처럼 우주인은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3차 선발자 10명

실제로 우주선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조정을 잡을 일은 별로 없다.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둥근 모양의 작은 우주정(소유즈호)에 가만히 앉아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므로 이·착륙 때 생기는 압력을 견디는 능력, 비좁은 환경에서 잘 버티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우주인을 소유한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타국가 우주인들은 우주선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 우주인도 우주선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우주과학실험을 주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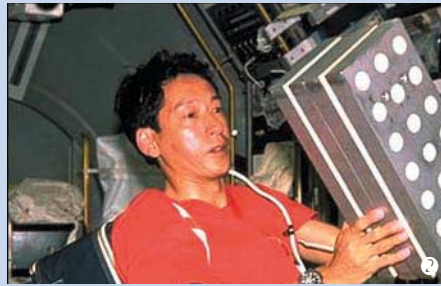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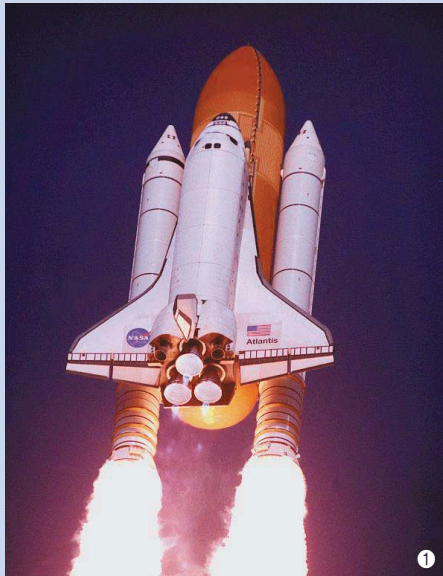
2. 우주인은 달에 가는 것인가요?

한국 우주인들이 닐 암스트롱처럼 달이나 화성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지구 상공 340km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에 가는 것이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위에서 지구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커다란 인공 위성이다. 향후 우주를 개발할 때 머물러가는 '정거장'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 우주인이 가는 곳은 흔히 'ISS'라고 불리는 국제 우주정거장이다. 과거에 들었던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는 2001년에 폐기됐다.

ISS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1998년 러시아에서 우주정거장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차리야'를 먼저 쏘아올린 후 미국이 또 다른 조립부분인 '유니티'를 발사해 차리야와 결합시켰다. 우주정거장은 무게 45톤, 본체 길이 88m의 거대한 초대형 우주선이다. 2010년 완공되면 축구장 크기의 약 1.5배가 된다.

3. 우주인은 과학자가 많네요

세계 각국의 첫우주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군인이거나 과학자



① 셔틀 ② 일본 우주인 모리 마모루 ③ 이스라엘 우주인 ④ 국제우주정거장 ⑤ 한국 최종선발자 2명 - 이소연(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고산(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다. 중국의 양리웨이, 브라질의 마르코스 폰테스, 이스라엘의 일란 라몬 등은 모두 군인 출신으로 신체조건이 좋고 비행체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있어 우주인으로 선발됐다.

또 다른 직업군으로는 과학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선 조정보다는 무중력실험, 우주의 생명 과학실험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학자 출신이 유리하다. 영국의 헬렌 셔먼, 프랑스의 클로디 에뉴레, 일본의 모리 마모루 등은 모두 연구원이거나 과학자 출신이다.

일본에서는 정부 공모를 통해 뽑은 모리 박사에 앞서 아키야마 기자가 처음으로 우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아키야마는 도쿄방송국에서 우주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회사 비용으로 승선시킨 최초의 상업적인 승객이었다.

4. 나라별 최초의 우주인들은 누구?

마스 과자회사 연구원이던 헬렌 셔먼은 1만3천 명의 지원자 중 최종 후보로 뽑혀 영국 최초의 우주인이 됐다. 1991년 미르 우주정거장에 탑승했으며 귀환 후 영국왕실로부터 명예기사작위도 수여 받았다.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다.

프랑스 최초의 우주인 클로디 에뉴레는 장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의대 출신의 신경과학자인 에뉴레는 1985년 유럽우주기구(ESA)에서 뽑은 우주비행사 및 과학자 모집에 선발됐다. 10년 뒤인 1995년 훈련에 들어가 1996년 8월 미르 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갔다. 그는 프랑스의 연구기술부 장관으로 지난 2004년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승선한 중국과 브라질의 최초 우주인들은 국가적

인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2003년 중국 최초의 유인우주선에 탑승한 양리웨이 공군 중령은 귀환 후 국가의 영예를 대표하는 '국보'이자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았으며 대령으로 진급했다. 지난 3월 29일 러시아우주선 소유스에 탑승, 우주비행을 성공리에 마친 마르코스 폰테스 브라질 육군 중령은 국가 영웅으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10월 실시되는 연방·주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5. 우주인이 되면 출세가 보장된다?

물론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가문의 영광' 이요, 앞으로 대중들의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뒤에 뒤따르는 위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인 일란 라몬 공군 대령은 임무 수행 도중 사망했다. 그는 2003년 1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를 타고 80여 가지의 과학 연구 실험을 수행했으나 2003년 1월 콜롬비아호 귀환 도중 공중에서 폭발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는 2명 모두 우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2007년 4월 러시아로 출발해 2008년 4월까지 1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생업도 접어야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과도 떨어져있어야 한다. 이렇게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최종 후보자 1명만 우주선에 탑승한다. 나머지 한 명은 훈련만 받고 탑승을 못하게 된다. 닐 암스트롱에 가려진 에드윈 올드린처럼 영광은 파트너에게 주고, 자신은 2인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④D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 전문기자로 활동중이며, 2006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